

브라질서 태권도 위상 드높이다

무주 학생태권도시범단

상파울로주 협회 초청

풀새·격파 등 시범공연

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위한 협약 체결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와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군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은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브라질 상파울로주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태권도 청립 52주년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펼쳤다.

이날 개막식은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를 비롯해 무주군 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 상파울로주 태권도협회 김요준 회장, 황인상 총영사관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공로)패 수여식,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 공연, 축시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시범단 공연에서는 품새, 태권댄스, 격파 등을 선보였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 퍼포먼스와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를 활용한 시범 공연을 통해 태권도를 세계로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을 지켜본 교포 및 현지인들은 브라질에 최고를 뜻하는 ‘파봉’을 와치며 환호했다. 시범을 보인 학생들에게는 사인과 사진 요청이 쇄도했다.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는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 초청 협조와 태권도 위상 제고 및 브라질 태권도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 황인상 총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브라질 상파울로주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지난 6일(현지시간) 브라질 태권도 청립 52주년 개막식에서 시범 공연을 펼쳤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영사: RENATA ABREU(레나타아브류) 연방하원의원 등 상파울로주 태권도협회 임원진과 정부·시 관계자 11명에게 황인홍 무주군수 명의의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 부군수는 “브라질 태권도 청립 52주년 개막식에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공연을 펼쳐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태권도의 제2의 부흥을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상파울로주 태권도 협회 김요준 회장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무주군 학생태

권도시범단 공연을 보고나니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끊임없이 “좋았습니다”며 “이번 시범 공연을 통해 브라질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무주군은 브라질 상파울로주 태권도협회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날 양 기관은 태권도의 융합과 영구 종목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 역량 결집과 태권도 교류를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무주군 태권도시범단 일정은 오는 12일 Sao Jose das Campos(상 조제 도스 까보스)에서 마지막 시범 활동을 마친 후 한국 현지 시각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하계 전지훈련 유치 총력전

이달 중 소프트테니스 꿈나무 선수팀 등 5팀 ‘맹훈련’

순창군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계 전지훈련팀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 한해 5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으로 소프트테니스 18개팀, 야구 8개팀, 테니스 2개팀, 장애인 사이클 2개팀 등 총 30개팀 유치하여 순창군 방문 연인원 1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달에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꿈나무 선수팀 경남체육회 소프트테니스 선수팀 등 5개 전지훈련팀이 방문할 예정으로 순창군에서는 시설 무상 사용, 훈련 경비 보조금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일부

전지훈련팀은 내년도 동계 훈련까지 예약하는 등 전지훈련팀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순창군이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는 이유는 공설운동장, 팔덕다용도경기장, 실내야구연습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스포츠마케팅팀의 반응성이 시설관리와 전지훈련팀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4개팀 13명으로 구성된 스포츠 방역 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밸류체크와 방역 소독으로 지역 내 전파차단에 민첩을 기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하고 있다.

체육진흥사업소 양은숙 소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추진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대회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이번 달 중 제6회 순창 강천 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2022 추계 한국대학 소프트테니스 연맹전 등 전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꽃과 햇살이 있는 남원여행

남원의 여름

숲에서 휴식 운봉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지리산허브밸리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롯지 | 나무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천혜의 절경 지리산뱀사골계곡

남원시
www.namwon.go.kr

문민희, 전국역도대회 ‘3관왕’

인상·용상·합계서 모두 1위 차지… 용상은 ‘신기록’



전북 유일 여자 역도 실업팀인 하이트 진로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9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2022 한국 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 경기대회’에서 하이트진로 문민희(사진)가 3관왕을 차지했다.

7kg급에 출전한 문민희는 인상(100kg)과

용상(129kg), 합계(229kg)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용상 기록은 이 대회 신기록으로 알려졌다.

문민희는 지난 5월 열린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도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 염옥진 감독은 “좋은 기록으로 메달을 획득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복싱 기대주 곽효준, 전국대회서 ‘금’

전국 시·도 복싱대회 -52kg급서 1위… 지난달 회장배 대회서 ‘최우수’



이 황상되고 있다”며 “올해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문화부장관배 전국 학생검도대회 익산서

14~16일 개최 1500여명 참가

익산시는 전국 최고 권위의 검도대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51회 전국 학생검도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광복절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수선수 발굴 및 검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및 익산시검도회에서 공동 주관한다.

국내 대표 검도대회로 전국 초중고·대학부 총 95개팀과 임원·관중 등 1500여명이 참가해 남녀 고등부 및 여자대학부 개인전과 조등~

대학부 5인제 단체전으로 나뉘어 경합을 벌인다.

14일 개인전을 시작으로 15일과 16일은 단체전을 진행하며, 누구나 실내체육관에서 현장관람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관람도 가능하다.

정현율 시장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대규모 전국 검도 대회가 명품스포츠 도시 익산에서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검도의 미래에 이번 대회가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